



The water

# Tuning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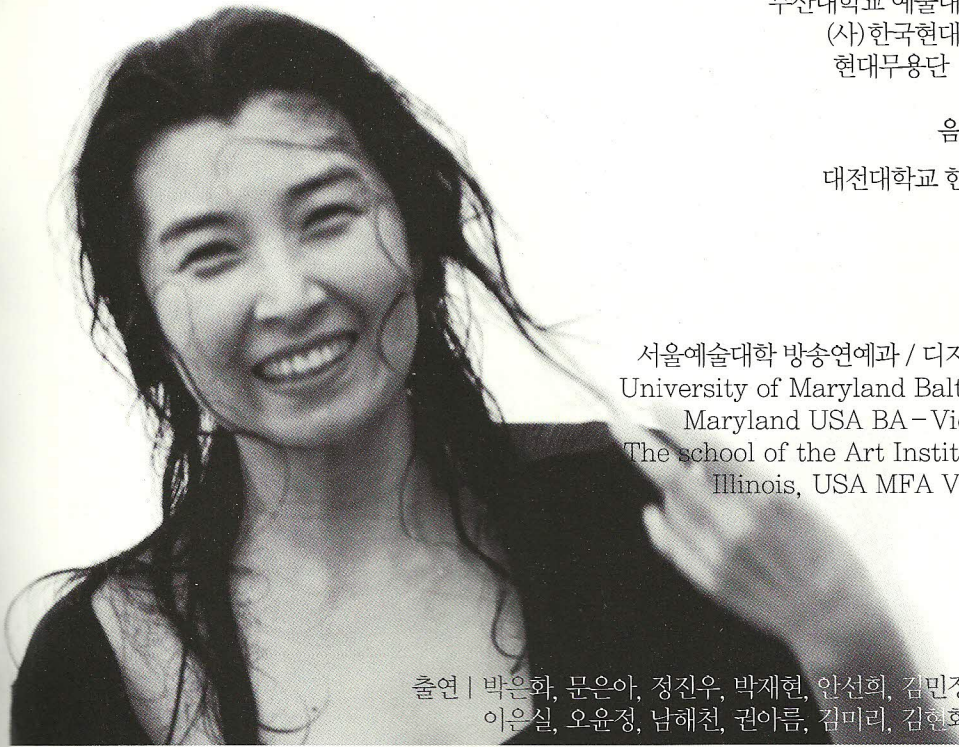
박은화현대춤

# 물이 나를 깨우니 내가 춤추는 강이 된다

흐르고 흘러서 비우고 비운다  
춤이 된다  
이것이 삶이 된다  
한 동작이 또 다른 동작을 깨워 일으킨다  
움직임이 흐르고 비우고 춤이 된다  
이것이 삶이다

- 2 | 질서 \_ 흐름속의 나를 보다  
혼란 \_ 흐름속의 생명의 변화를 보다  
구름, 눈, 비, 얼음  
흐른다, 고인다, 떨어진다, 또 다시 흐른다
- 3 | 튜닝 \_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순환의 흐름 속에  
한 방울의 물로 또 다른 나를 만나다.





안무 | 박은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사)한국현대춤 연구회 부회장  
현대무용단 "자유" 예술 감독

음악, 연주 | 신기용

대전대학교 한방음악요법 교수  
대체 의학전문가  
기공음악가

영상 | 서양범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 디지털아트학부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ry  
Maryland USA BA - Video/film과 졸업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MFA Video Art과 졸업

의상 | 선미수

무대 | 양동주

조명 | 김민재

사진 | 이선화

출연 | 박은화, 문은아, 정진우, 박재현, 안선희, 김민정, 박근영, 김수현  
이은실, 오윤정, 남해진, 권아름, 김미리, 김현화, 오새롬, 이지혜





## 현대무용가 박은화의 작품은 음악과 움직임의 교감이 주는 여운이 만만치 않다

「현대춤 4인전」(9월 11일, 중앙아트센터)에서도 박은화는 자신의 이같은 독특한 칼라를 확실히 드러내 보였다. 두 종류의 악기와 한명의 몸이 만난 「Tuning VII - the water」를 통해 박은화는 전작보다 더욱 감도를 높인 음악과 움직임과의 교합을 창조해냈다. 마림바와 피아노가 어울린 라이브 연주는 박은화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물 흐르듯 물결치며 기막히게 출렁였다. 각 악기군의 사운드를 움직임의 변이에 따라 청각을 자극하는 음향 효과로까지 확대하고, 붉은색의 한지를 이용해 무대 위 분위기를 일신하며 관객들의 집중력을 잡아끄는 계산된 연출도 빛을 발했다. 특히 중반 무대 위에서 구겨진 한지 더미가 주는 묘한 질감은 피아노와 마림바의 선율이 변하는 타이밍에서 독특한 질감의 춤과 만나면서 더욱 선명해졌고, 그녀의 검정 의상은 붉은색 한지가 주는 색감과 맞물리면서 흑과 적의 대비, 공간을 파고드는 흐르는 음과 몸의 율동이 교합하는 데서 오는 독특한 분위기로 더욱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마림바에 맞추어 박은화는 직접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춤추다 이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움직였고, 검정 의상에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시작한 춤은 마무리도 같은 동작으로 끝냈다. 몸으로 무대 분위기를 마음대로 장악하는 박은화의 감각은 솔로 춤으로 화려하게 만개했다.

박은화가 2000년부터 추고 있는 Tuning 시리즈 일곱 번째 작업인 이번 무대는 “내가 춤추는 강이 된다”는 안무가의 말처럼 제목과 움직임과의 매치가 기막히게 어우러지면서 작가의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 보인 수작이었다.

\_ 2004.10 「춤」 무용평론가 장광렬

**Tuning**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곱 편(Tuning I~VII)의 공연을 가져왔다.

하나의 주제로 매 공연마다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찾아가는 작업, 나를 버릴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튜닝은 혼란, 질서, 야누스 - 그것들을 통해 지아와 이 시대의 정체성을 응시해 보고자 한다.

# Tuning